

추억이 묻어나는 유년의 교실을 찾아서

〈옛 자료로 본 한국교육 변천사전〉 열려

교육 사이트 〈즐거운학교〉(www.njoyschool.net)가 주최한 〈옛 자료로 본 한국교육 변천사전〉이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전시관 제3전시실에서 열렸다. '엄마·아빠 학교 다닐 적에...'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교육자료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.

이번 전시회는 18년 동안 교과서·교육자료를 수집해온 고문헌 수집가 양호 열씨(45)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꾸며졌다. 19세기 서당 교과서부터 현대의 교과서까지 교육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변화와 시련을 겪어왔던 교과서의 변천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다.

교과서 외에도 문방구류, 등사기, 교복, 도시락 등 '추억의 책가방' 속에 남겨진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자료

들이 전시되고, 조선시대 서

당풍경과 1960~70년대 교

실풍경이 함께 재현돼 방문객

들의 웃음을 자아냈다. 이 행

사를 준비한 〈즐거운학교〉 오

귀환 대표는 이번 전시회가 "지

난 세대의 교육을 제대로 평가하고, 세

대간 관계를 복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

다"며, "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번 전시

회를 통해 과거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호

흡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"고 밝혔다.

다. - 박옥순 기자



"나는 오늘 엄마랑 목욕탕을 갔다. 그런데 내 짝궁 은숙이를 만났다. 하필 목욕탕에서 고 계 집애를 만날 게 뭐람. 나는 때도 못 뉘고 엄마의 커다란 엉덩이 뒤에 숨어 은숙이의 눈치만 봤다." 시대를 달리하며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온 빛 바랜 일기장 (위).

교육에서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집요하고 치밀했다. 그 시절의 학교는 신교육이라는 명 목 아래 일본어교육과 천황제사상 주입이라는 또다른 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. 일제강점기 교과서인 〈초등습자〉 〈보통학교〉 〈서방수본〉 (왼쪽).

"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..." 훈장선생님이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선창을 하시면 "하 늘 천 따지 가마술에 누룽지..." 아이들은 어느새 목청 좋은 '청개구리'가 된다. 조선시대 교육자료실에 전시된 19세기 서당 교과서(왼쪽 아래).

조개탄이나 장작을 때는 무쇠난로가 교실을 훈훈하게 덥힐 때면 아이들의 뱃속에서는 꼬르 륵 소리로 야단이다. "어, 이게 무슨 냄새지?" 난로와 도시락이 쌓여있는 1960~70년대 교실풍경(아래).

